

# 삼성전자 '1조 상생펀드' 만든다

## 광주·전남 1차 협력사 80~90곳 원자재 구입비 지원

### 글로벌 기업 육성 등 '상생경영 7대 실천방안' 발표

삼성전자가 현금결제 대상 1차 협력업체를 늘리고, 우수업체 50개사를 발굴해 글로벌 기업으로 키운다. 또 1조원 규모의 '협력사 지원 펀드'를 조성하고, 협력업체들의 원자재 구입 부담을 없애기 위해 원자재를 직접 구매해 제공하는 '사급제도'를 도입한다.

삼성전자는 16일 협력업체 지원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상생경영 7대 실천방안'을 발표했다. 실천 방안에는 1차 협력업체 확대, 사급제도 도입, 1조원 규모의 상생펀드 조성, 글로벌 기업 육성, 공동 기술개발 지원센터 운영 등이 담겨 있다.

삼성전자는 현재 800개사 정도인 1

차 협력업체를 늘리기로 했다. 이를 위해 1차 협력업체와 5억원 이상 거래하는 2차, 3차 협력업체 가운데 기술·품질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들을 골라 1차 협력업체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1차 협력업체가 되면 삼성전자와 거래 대금을 전액 현금으로 받을 수 있다.

삼성의 생활가전을 생산하는 삼성광주전자의 1차 협력업체는 200여곳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중 광주·전남지역 업체는 80~90개사 정도다.

삼성전자는 이들 1차 협력업체를 세계적인 수준의 기업으로 육성하는 '베스트 컴퍼니' 제도도 도입한다. 이

는 삼성전자와 거래 규모가 연간 30억원 이상인 100여개 협력업체 중 50개사를 2015년까지 선발해 기술개발부터 경영까지 지원해 세계적 기업으로 키우는 것이다.

삼성전자는 또 협력업체의 원자재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사급제도도 도입한다. 사급제도는 삼성전자가 원자재를 대신 구매해 협력업체에 공급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되면 협력업체들은 원자재 값이 폭등해도 삼성전자가 비용을 부담하기 때문에 위험 부담이 없다.

삼성전자는 삼성광주전자가 생산하는 냉장고와 세탁기, 에어컨 등 대형 가전에 필요한 철관, 레진, 동 등 3대 원자재에 우선 적용하고 점차 다른 원자재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삼성전자는 기업은행과 공동으로

최대 1조원 규모의 상생펀드도 조성한다. 이 펀드는 협력업체의 설비투자자와 기술 개발, 운영자금 대출에 쓰일 예정이며 10월부터 시행된다.

이밖에 삼성전자는 2, 3차 협력업체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협력사 평가를 통한 불공정 관행 개선과 사이비 신문고 운영, 교육지원 프로그램 확대, 신규 협력업체 적극 발굴, 공동 기술개발지원센터 설립, 증권 전문인력 구직 지원 등을 시행할 방침이다.

박종서 삼성전자 상생협력센터장은 "삼성전자의 상생활동을 기본부터 점검하고 협력업체의 애로 사항을 다시 한 번 되돌아봤다"며 "7가지 실천방안이 진정한 상생에 효과적 해법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 '빛더비 LH' 비상경영체제 돌입

## 올 본사 인력 현장배치 ... 9월 부채해소 대책 마련

118조원이라는 천문학적 규모의 빛더비에 올라앉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재무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비상경영 체제에 들어갔다.

LH는 16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 본사 대강당에서 이지송 사장과 임직원 등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위기 상황 극복을 위한 비상경영 선포 및 노사 공동 결의대회'를 열고 비상경영 체제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현재의 재무 상황 자체도 심각한 상태이지만 부동산 시장이 살아날 기미를 보이지 않으면서 위기가 점점

커질 공산이 커 통상적인 경영으로는 상황을 타개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LH는 이 사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비상경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이번 주중 60개항의 자구책을 마련해 우선 시행할 방침이다.

1인 1주택·토지 판매, 경장경비 및 원가 각 10% 절감, 휴가 반납 및 휴일 비상근무, 토지수익연계채권 발행 등 자금 조달 다변화, 적정 보상을 통한 원가 절감, 조직 및 인력 구조조정 등이 포함된다.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올해 초 본사 인력의 30%에 해당하는 500여명을 각 지역으로 내려보낸 데 이어 본사 인력 등 300여명으로 '보상 판매 비상대책 인력 풀'을 구성해 조만간 현장 배치할 예정이다.

LH는 또 재무개선특별위원회를 통해 부채 해소를 위한 종합대책을 9월 말까지 마련할 방침이다.

임대주택·토지 등에 이미 투자된 부채는 판매 촉진과 정부지원을 통해 점진적으로 감축하고 향후 발생하는 부채는 사업 조정과 수익성 개선으로 최대한 억제하겠다는 것이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16일 서울광장에서 열린 '에너지의 날' 주간 행사에 참석한 시민 및 자원봉사자들이 시소형태의 기구를 이용해 전기를 만드는 체험을 하고 있다. 이 행사는 전국 254개 환경, 소비자,여성단체로 구성된 에너지 전문 NGO 연대기구인 에너지 시민연대가 주최했다. /연합뉴스

# 건설사 94% "경영여건 안좋다"

## 부동산경기 침체로 물량감소·자금난 '이중고'

부동산 경기 침체로 대부분 건설사가 극심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한상공회의소가 16일 전국 600개 건설사를 대상으로 '건설업계의 애로실태와 정책지원과제'를 조사한 결과다.

이번 조사에서 응답기업의 93.8%가 경영여건이 어려워지고 있거나 견디기 힘든 상황이라고 답했다고 밝혔

다. 어려운 이유로는 '공사물량 감소'라는 응답이 51.1%로 가장 많았고, 이어 '자금조달 애로'(25.4%), '미분양·미입주 증가'(17.3%), '원자재 가격 상승'(6.2%) 순이었다.

부동산 시장 침체를 극복하기 위한 조치를 묻는 말엔 46.1%가 '별다른 대책이 없다'고 답했고, '구조조정 추진'과 '신사업 진출'이란 답변은 각각

38.0%, 12.4%에 그쳤다.

지난 6월 말 건설사 신용위험평가 이후 자금조달 여건이 개선됐다는 응답은 0.4%에 불과했고, 오히려 악화됐다는 답변이 30.2%에 달했다.

또 응답기업의 75%는 정부의 미분양 주택 구입정책이 '별 도움이 안 된다'고 밝혔다. 그 이유로는 '매입대상 제한' 때문이라는 답변이 62.4%였고, '매입가격이 낮아서'란 응답은 24.5%였다. 한편, 향후 부동산 시장 전망에 대해서 '특단의 대책이 없는 한 침체가 지속될 것'이란 답이 59.8%로 가장 많았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 현대차 구매총괄본부장 오승국



현대차 구매총괄본부장에 오승국(58) 구매본부 부사장이 선임됐다.

현대·기아차는 김승년 사장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공석이 된 현대차 구매총괄본부장에 오 부사장을 선임했다고 16일 밝혔다.

오 신임 본부장은 성균관대 전기학과를 졸업한 뒤 1978년 현대차그룹에 입사, 현대차 품질관리2부장과 기아차 업체협력실장, 베이징 현대기아차 구매본부장 등을 역임했다. /연합뉴스

# 광양제철 가동률 100% 넘었다

## 포스코 상반기 영업이익의 3조2천억 504% 증가

광양제철소가 포스코의 상반기 생산호조를 견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양제철소는 지난해 평균 가동률 76.3%에 그쳤으나 올 상반기 무려 103.9%를 기록, 같은 포스코 사업소인 포항제철소의 가동률(96.5%)을 앞질렀다.

16일 포스코가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반기보고서에 따르면 포스코의 올

해 상반기 평균 가동률은 100.6%를 기록했다. 사업소별로는 포항제철소 생산실적이 723만t으로 평균 가동률 96.5%를 기록했다.

반면 광양제철소는 935만t을 생산해 가동률이 103.9%에 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의 생산실적 645만t(가동률 76.3%)보다 무려 44.9% 늘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포스코는 올해 상반기 매출도 크게 늘었다.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누적 매출액 14조8822억원, 영업이익이 3조2830억원, 당기순이익이 2조6334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기간 매출액(12조8152억원)보다 16.1% 늘었고, 영업이익(5434억원)과 당기순이익(7550억원)도 각각 504%, 248% 증가한 액수다.

이같은 호조세는 전반적인 세계경제 회복에 따라 자동차와 가전, 건설 등 주요 수요 산업이 수출과 내수 양 측면에서 모두 살아났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 기아차 노사 오늘 광주서 2차 교섭

기아자동차 노사는 17일 오전 11시 광주공장에서 '2010 임금 및 단체협약' 2차 본교섭을 연다.

기아차 노조가 3개월만에 잔업과 특근을 재개하고, 사측도 현대차 수준의 임협안을 제시할 것으로 보여 무분규 타결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다만 타임오프(근로시간면제)가 제가 걸림돌이다.

16일 기아차 노사에 따르면 지난 11일 경기도 광명시 소하리공장에서 상견례를 겸한 올해 첫 임단협 본교섭을 연 기아차 노사는 17일 오전 11시 광주2공장 연수원에서 2차 본교섭

을 진행한다. 서영중 사장과 김성락 노조 지부장 등 노사 교섭위원 40여명이 참석, 20년 만의 무분규 협상 타결을 위해 앞으로의 교섭 일정과 실무 협상 등을 논의한다.

기아차가 과업없이 임단협을 타결하면 노조가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 지난 1991년 이후 처음이다. 국내 완성차 업계로서도 지난 1987년 현대차와 쌍용차 노조가 설립된 이후 24년 만에 업계 무과업 기록을 세우게 된다.

기아차 노조는 16일부터 잔업과 특근을 재개했다. 특히 계약 고객의 출고 대기 평균 기간이 두 달 이상인 K5

와 스포티지R 등 전략 차종을 생산하는 공장의 경우 특근을 강화하기로 했다.

기아차 노사의 협상이 여태껏 미뤄졌던 만큼 집중 교섭을 통한 조기 타결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 사측은 기아차 노조에 대해 현대차 수준의 임협안을 제시할 것으로 전해졌다.

현대차는 지난 7월 임금 7만9000원 인상, 성과급 300%+200만원, 글로벌 판매 향상 격려금 200만원 지급 등의 합의안을 노조 투표를 통해 가결했다. 여기에 무분규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2년 연속 무상주를 받게 됐다. 현대차가 성과급으로 내놓은 자사주 30주는 현재 주가가 13만원대인 것을 감안하면 1인당 400만원 상당이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 코스피지수	1,743.31 (-2.93)
▼ 코스닥지수	476.08 (-1.09)
▲ 금리 (국고채 3년)	3.74% (+0.01)
▲ 원·달러 환율	1,187.20원 (+3.40)
※수치는 전일 증가 기준	

# 좋은 보청기를 쓰십시오

국제보청기

국제보청기를 착용하면 매우 잘 들립니다. 국제보청기는 작은 두 귀만으로 확실히 들립니다. 국제보청기에 더 나은 청각을 위한 고기능성에 만족할 것입니다.

국제보청기

전화번호: 10821 227-9348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12

문의: 02-227-9348

팩스: 02-227-9348